

- 주요 뉴스: 미국의 무역수지 및 주간 고용지표, 경기회복 지속 가능성을 시사
 -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, 이르면 3월에 금리인상. 이후에 양적긴축 가능
 - 독일 2021년 12월 소비자물가,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징후 발생
 - 중국 공산당 고위관계자, 경제 안정은 매우 중요한 2022년 정치적 주제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연준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이 지속되며 위험자산 선호 약화

주가 하락[-0.1%], 달러화 강세[+0.1%], 금리 상승[+2bp]
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금융주 상승 불구, 통화긴축 우려로 투자심리 저하
유로 Stoxx600지수는 기술주 부진 등으로 1.3% 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매수세 강화
유로화 가치는 0.2% 하락, 엔화는 0.2% 상승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긴축강화 신호 등이 반영
독일은 인플레이션 우려로 2bp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205.8원, +4.0원) 0.3% 상승, 한국 CDS 상승

		1/6일	1/5일	전일대비			1/6일	1/5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696.1	4,700.6	-0.10%	국채 금리 10y	미국	1.72%	1.71%	2bp
	유럽	488.16	494.35	-1.25%		독일	-0.06%	-0.08%	2bp
	중국	3,586.1	3,595.2	-0.25%	CDS 5y	한국	24bp	23bp	1bp
	일본	28,488	29,332	-2.88%		중국	44bp	40bp	3bp
	한국	2,920.5	2,954.0	-1.13%	위험 지표	EMBI+	-	383	-
환율	달러지수	96.23	96.17	0.06%		VIX	19.61	19.73	-0.61%
	유로화	1.1297	1.1314	-0.15%		WTI유	79.46	77.85	2.07%
	엔화	115.83	116.11	0.24%	원자재	구리	435.4	441.4	-1.36%
	위안화	6.3830	6.3639	-0.30%		금	1,791.2	1,810.4	-1.06%
	원화	1,201.0	1,196.9	-0.34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의 무역수지 및 주간 고용지표, 경기회복 지속 가능성을 시사

- 2021년 11월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802억달러로 전월비 19.4% 증가. 이는 수출 보다 수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. 공급 차질 완화와 본격적인 연말 소비 기간 시작에 따른 가계소비 증가 등으로 수입이 큰 폭으로 확대
- Wells Fargo의 Shannon Seery는 수입이 수출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미국의 강력한 경기회복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. 또한 공급망 문제의 점진적 해소 신호도 긍정적이라고 진단
- 한편 2021년 12월 5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는 20만7천건으로 전주 대비 7천건 증가했으나 여전히 매우 적은 수준. 이는 오미크론 확산에도 기업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 직원의 해고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
- JP모건의 Daniel Silver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신호라고 평가. 다만 일부에서는 양호한 고용증가가 연준의 긴축강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, 이르면 3월에 금리인상. 이후에 양적긴축 가능

- 블라드 총재는 3월 금리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 제어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. 또한 그 이후의 금리인상 속도는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고 발언. 한편 향후 경제성장률은 장기 추세선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

■ 2021년 12월 ISM 서비스경기지수, 전월비 둔화. 공급 차질 완화 신호 발신

- 해당 지수는 62.0으로 전월(69.1) 대비 하락. 이번 결과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등에 기인. 개별 항목 가운데 신규수주와 고용이 부진한 반면, 공급업체 배송은 개선. 다만 투입비용은 높은 수준을 유지

■ 독일 2021년 12월 소비자물가,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징후 발생

- 같은 달 소비자물가의 전년동월비 상승률은 5.7%로 전월(6.0%) 대비 둔화. 이번 결과는 공급 차질 완화 및 에너지 가격 상승세 둔화 등이 작용

■ 골드만 삭스, 원자재 부문에 강세장 시각 유지

- 제프 커리 원자재 리서치 헤드는 주요 원자재에 유입된 투자금의 규모가 아직 적은 수준이라고 평가. 또한 원유시장은 OPEC+ 국가들이 점진적으로 생산 증가에 나서고 있지만, 수급 불균형이 여전하다고 진단

■ 중국 공산당 고위관계자, 경제 안정은 매우 중요한 2022년 정치적 주제

- 중앙재경위원회의 한 원슈 부주임은 모든 지역과 각 산업분야에 경제안정의 책임이 있으며, 당국은 이러한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. 또한 보다 적극적인 재정지출과 적절한 수준의 인프라 투자가 중요하다고 부연

■ 중국 2021년 12월 차이신 서비스 PMI, 전월비 상승. 수요 증가 등에 기인

- 같은 달 해당 지수는 53.1을 기록하여 전월(52.1) 대비 상승. 세부 내용에 따르면 수요증가와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등이 발생했고, 고용지수는 5월 이후 최고치. 다만 전망지수는 2020년 9월 이후 최저 수준

■ 2021년 12월 세계식량지수, 5개월 만에 하락. 연간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

- 유엔 식량농업기구(FAO)에 따르면, 해당 지수는 133.7로 전월(134.9) 대비 하락. 세부 항목 기준으로는 유제품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이 전월 대비 부진. 한편 2021년 평균 지수는 125.7로 2011년(131.9) 이후 최고치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/6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2021년 11월 제조업 수주(전월비): 1.6%, 10월(1.0%), 예상치(1.3%)
- 미국 2021년 12월 5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(만건): 20.7, 전주(20.0), 예상치(19.7)
- 미국 2021년 12월 무역수지(억달러): -802, 11월(-672), 예상치(-771)
- 독일 2021년 11월 제조업 수주(전월비): 3.7%, 10월(-5.8%), 예상치(2.1%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1/7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2021년 12월 고용보고서, 2021년 11월 소비자신용잔액
- 유로존 2021년 12월 소비자물가, 2021년 11월 소매매출
- 독일 2021년 11월 산업생산, 일본 2021년 11월 가계소비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미국 FOMC 의사록, 통화정책의 매파적 의도를 강하게 표출 - 블룸버그

(The Fed Minutes That Shook the World)

- 2021년 12월 FOMC 의사록 내용에는 매파적 기조가 강하게 나타났는데, 이는 물가상승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시사. 특히 최근에 발표된 경제지표들이 대부분 경기확장 국면이 유지될 수 있다는 신호를 발신
- 12월 ISM 제조업부문 지불가격지수는 공급차질 개선으로 큰 폭 하락했고, 12월 ADP 민간고용도 시장 예상보다 2배 이상 증가. 다만 오미크론 등의 확산은 연준이 급격한 통화정책 전환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

■ 2022년 에너지 시장, 3가지 주요 변화와 전망 - Financial Times

(Three top energy themes for 2022)

- 첫째, 높은 수준의 에너지 가격 지속이 예상. 주요 분석가들은 전반기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할 것이라고 예측. 다만 연료비의 상승이 지속된다면 카자흐스탄의 경우처럼 일부 지역에서는 정치·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
- 둘째, 미국은 셰일기업이 수익구조를 확고히 하며 원유 및 천연가스 최대생산국으로 부상할 전망. 셋째, 미국은 인프라 지출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유럽은 그린에너지 지정과 관련한 이견이 충돌하며 탄소배출 저감에 난항이 예상

■ 2022년 미국 노동시장, 연말 정상화가 예상되나 오미크론 해결이 선결 과제 - 블룸버그

(Normalizing But Not Back to Normal: The U.S. Job Market in 2022)

■ 미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계획, 지방정부와의 협력·장기적 접근이 관건 - Financial Times

(Joe Biden's infrastructure plan rises to China challenge but faces its own)

■ 기업의 리스크 대응, 기후 변화 반영한 다면적 접근이 요구 - 블룸버그

(Covid-19 Hit Supply Chains Hard. Climate Shocks May Hurt More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jsjeong@kcif.or.kr